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1년 5월 17일 월요일 (음 4월 6일) 제2779호

www.jjmae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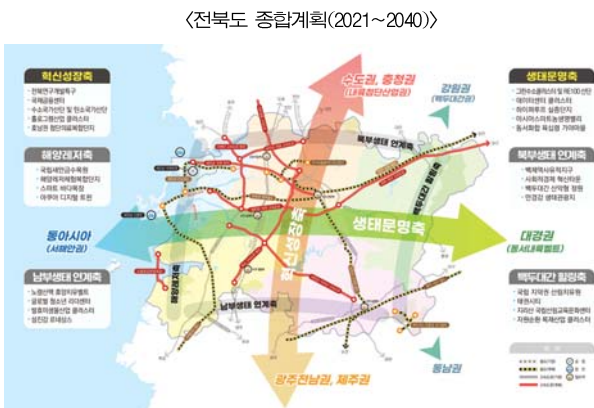
대표전화 (063)288-9700

미래전북 20년 발전방향 신산업·생태문명 중심

도, 2040 종합계획 수립

지방소생·도농상생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첨단교통광역체계 구축

혁신성장축 등 설정
미래지향적 공간 구성도



전북도는 미래전북 20년의 발전 방향을 결정하는 '제4차 전라북도 종합계획(2021~2040)(안)' 최종보고회를 지난 14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송하진 도지사 주재 아래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을 맡은 전북연구원은 미래 전북의 정책방향 정립에 있어, 도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미래가치, 삶의 질 향상 부문, 우선 추진 현안, 정책 방향 등 도민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초로 도민이 염원하는 전북의 미래발전 계획(안)을 수립 발표했다.

사람과 자연, 기술이 공존하면서 회복력이 높은 지속가능한 사회로 전환해가는 전북의 미래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4+1대 목표와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다.

먼저, 도내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소생 및 도농상생 정책과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태계 확충을 추진한다. 주요사업은 다목적형 바다 숲 조성, 스마트팜 혁신 벨트, 새만금 하이퍼루프 실증단지, 국립 새만금 수목원 등이다.

DNA 기반 지능형 농생명 산업화 및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재생에너지 전환을 통한 그린뉴딜, ICT융합의 디지털 뉴딜사업 등 신성장 동력도 창출한다. 주요사업은 그린·탄소국가산업단지 조성, 데이터산업 클러스터, 호남권 첨단의료융합단지,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등이다.

문화저지 생태계 구축과 역사·문화의 사회적·경제적 부가가치 확

대, 4차 산업 혁명을 선도하는 선진 체험관광을 육성하고, 지역개발 혁신의 첨단교통 광역 체계 구축, 새만금의 '글로벌 자유무역의 중심지'로 개방형 협력도시로서 육성한다. 전북도의 이러한 4대 목표와 발전 전략들은 '포용·균형·안전·복지' 도민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기본 목표가 전제가 돼 추진하게 된다.

가. 기본 목표의 주요사업은 빅데이터 기반 실버케어 플랫폼 구축, 고령친화도시 조성, 감염병 대응 등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이다.

또한, 각 목표별 세부전략으로 경제·산업, 관광 교통, 사회, 환경 등 8대 부문 28개 추진과제를 수립하고 향후 20년간 사업별 재정투자 계획으로 120조 규모를 전망했다.

아울러, 국토 광역화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세종·충청권·수도권 연계벨트인 혁신성장축, 새만금권 확산 및 동서 상생발전 벨트인 생태문명축을 설정, 이른바 5권 6축의 미래지향적 공간 구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도내 전역을 새만금권, 중추도시권, 동북권 서남권 동남권의 5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 간 상호 연계를 통한 상생발전을 강화할 특화전략을 마련했다.

특히, 미래20년에는 지역총생산액

이 현재 57조2,710억원에서 121조 1,350억원으로 112% 증가하며, 전체 산업에서는 1차 산업은 7.1%에서 5.1%로, 2차산업은 31.7%에서 31.9%로, 3차산업은 54.0%에서 56.4%로 그 비중이 전환되는 것으로 내다보았다.

한편, '제4차 전라북도 종합계획'은 국토교통부에서 국토기본법에 근거해 수립한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정책방향과 연계해 지역계획을 구체화한 전북도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이날 보고회에서 나온 의견을 최종 보완해 국토교통부 승인 및 고시를 거쳐 최종 확정되면, 전북도 중장기 발전전략과 환경, 지역개발, 분야별·시간별 관련 정책 수립에 활용하게 된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번 제4차 도 종합계획은 디지털·그린 경제로 전환이 요구되는 환경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우리 도의 중장기적 미래 발전 전략이다"면서 "미래의 불확실성에 선제적·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큰 틀과 정책 방향을 설정한 만큼, 앞으로 전북민의 정체성을 부각할 수 있는 사업과 초광역화에 대비한 구체적인 사업들을 추진해 본 계획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찬란하게 빛나는 오색연등 불기 2569년 부처님오신날을 며칠 앞둔 지난 14일 전주시 정혜사에서 관계자가 오색연등에 소원지 달고 있다.

내외국인 일용직 고용시 코로나19 검사 실시

도, 행정명령 발령 오늘부터 시행... 인력사무소 사업자 등이 대상

전북도는 코로나19의 효과적인 확산 차단과 선제적 예방을 위해 내외국인 일용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의무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최근 도내 일부 농·축산업 및 건설 현장 산업단지에서 근로하고 있는 내외국인 근로자의 확진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이를 중 변이바이러스로 확인된 사례도 있어 급속한 전염병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전북도는 사업주들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인력민을 고용하게 함으로써 좀 더 효과적으로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고자 행정명령을 추진

하게 됐다. 이번 행정명령은 17일부터 시행한다. 대상자는 제조업, 건설업, 농업, 어업, 축산업의 사업장에서 내외국인 일용근로자를 고용해 사업을 운영하는 자 및 인력을 공급하는 인력사무소 사업주(대표자)다.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자나 인력사무소 사업주는 고용하고자 하는 내외국인 일용근로자에 대해 보건소 등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또한 고용 전 3일 이내 진단검사 결과를 확인 후 인력을 고용해야 한다. 단, 특별한 상황이 있어 이행이 어려

울 경우에는 해당 지역 보건소와 협의해야 한다. 더불어 매일 근무지가 바뀌는 근로자는 1주일 단위로 주기검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에는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 청구가 이뤄질 수도 있다. 이번 행정명령은 일용근로자에게 내려진 명령이 아니고, 이분들을 고용하는 자와 인력을 공급하는 인력사무소 사업주에게 내려진 것으로, 일용근로자의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 조금 번거로운 수는 있어도 근로자 개인의 건강과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다. /유호상 기자

'빈집에 새 생명'... 도, 정비 프로젝트 확대 추진

전북도가 농어촌 및 도심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대상으로 올해 총 71억 원을 투입해 도내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빈집 프로젝트'를 확대 추진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올해 전북도는 6개 사업 총 1,814동의 빈집을 대상으로 다양한 빈집정비

시책 사업에 팔을 걷어 붙인다. 우선 농어촌 지역의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주거용 빈집에 대해 총 29억 원을 투입, 1,300여 동에 대한 철거 지원을 지속 시행한다. 또한 '20년 국토부 건축행정평가'에서 최우수 정책으로 선정된바 있는 회

망하우스 빈집재생 프로젝트'에 올해 72동, 총 14억 원을 투입한다.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의 무상임대주택(최대5년)과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등 커뮤니티 공간으로 총 72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빈집 소유자의 적극적인 빈집 정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혜택 등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유호상 기자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